

# 주일오후 가정예배 순서지

-일 시 : 2022년 4월 10일 오후 2시 30분

-장 소 : 가족들과 함께 정해진 장소

- 묵상기도 / 각 자
- 기 원 / 인도자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경배찬송 /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 기 도 / 가족 중에서
- 성경봉독 / “출 27:9-21”(구약p.123) / 가족 중에서
- 말 씀 / “성전의 뜰과 등불”/인도자

성막의 뜰은 성막을 항상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께 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을 항상 사랑으로 감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 1. 이 뜰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징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려면 뜰을 통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완전한 삶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모범적인 삶인 것입니다.

## 2. 이 뜰은 안전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 세마포장이 쳐진 이 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원수도 이곳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세상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피난처의 구실을 해야 합니다.

## 3. 성막의 뜰은 성경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막에 들어가려면 뜰을 통해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성경이라는 뜰을 통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4. 이 뜰은 성전을 상징합니다.

뜰이 성막으로 인도하는 통로이듯이 성전은 은혜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성전을 무시하고서는 은혜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성전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또한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지정된 곳이므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 5. 성막과 뜰은 늦으로 된 말뚝으로 지탱되었습니다.

이 말뚝이 성막과 뜰을 안전하게 꼭 붙들어 매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견디어 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뚝 덕분에 성막과 뜰이 안전하게 지탱되

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 덕분에 안전한 곳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에 심판의 고통을 대신 받으시면서 끝까지 견디어 내신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성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는 항상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도록 했습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라고 한 것을 보면 주야로 하루 종일 등불을 켜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는 여호와와 등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뜻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1. 등불의 기름은 감람유였습니다.

감람유는 감람나무에서 짜낸 기름으로 이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 그리고 각각의 집마다 있는 흔한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의 기름으로 여호와와 등불을 끊이지 않게 켜 놓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편성과 그 은혜의 값없이 주심을 의미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거룩과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 등을 상징합니다. 성막 안에 항상 등불을 켜 놓게 한 것은 성막이 은혜, 성결, 능력의 공급처이며 하나님이 항상 임재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의 원천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 2. 기름의 특성은 순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은혜는 순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기에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는 순결한 것입니다. 부정하고 불순한 우리 인간들은 부단히 그리스도와 만날 뿐 아니라 그 안에 거함으로써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 순전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의 순결이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나의 음성이 사라져 버릴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해질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이 완전히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될 때 순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결, 정결,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의 등불을 항상 꺼지지 않게 점검한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항상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 기 도 / 가족 중에서
- 파송찬송 / 새303장(통4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 주기도문 / 다같이

### \*광고 :

1. 금주 수요일(4월 13일) 저녁 예배는 본당에서 예배로 드려집니다.
2. 교우들의 건강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봉사자들과 모든 공무원을 위해, 그리고 학생의 정상적인 등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3.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소독 등의 생활화와 많은 사람과의 접촉 및 모임 자제에 힘쓰며, 4월에도 거리 두기 삶을 잘 실천하여 건강하도록 기도합니다.